국내 반응성염료 개발“한창"

물성 우수 전체염료 중 30% 차지 … 경인합성 Blue-R 개발성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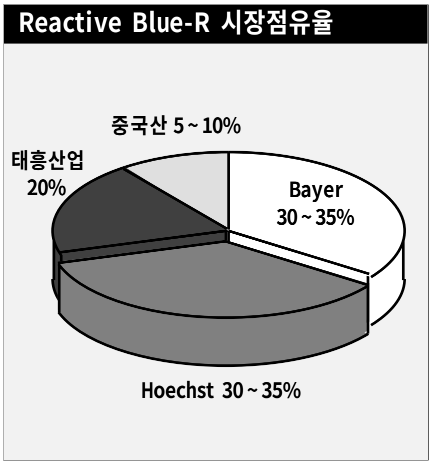
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반응성염료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염료생산실적은 2만525톤으로 이 중 29.2%인 5985톤이 반응성염료이다. 그러나 아직도 국내사용량의 50% 정도는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.

반응성염료는 다른 염료에 비해 비교적 늦게 개발된 염료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연구 ·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염료이다.

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연구 ·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인합성(대표 안승채)에서 반응성염료 Blue-R(Blue-19)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Reactive Blue-R 시장점유율



이 염료의 국내 수요량은 연간 300톤, 6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최초 독일의 Hoechst가 Remazol Blue-R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Bayer이 Lavafix Royal Blue E-FR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도 저가를 바탕으로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에서는 태흥산업에서만 이 염료를 생산 ·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경인합성도 개발에 성공, 본격적인 시판을 시작하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경인합성이 개발한 반응성염료인 Blue-R은 자체 연구실에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색상이 선명하고 물이나 햇빛에 탈색이 잘되지 않는 섬유 염색용 염료라고 밝혔다.

현재 이 염료에 대한 생산설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시험생산에 머무르고 있으나 생산설비가 갖추어지면 곧 본격 양산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 반응성염료 Blue-R에 대한 각사별 시장점유율은 독일의 Bayer과 Hoechst가 각각 30 ~ 35%를 점유하고 있으며 태흥산업은 20% 정도이며, 중국산이 5 ~ 10%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반응성염료 또는 반응염료는 셀룰로스의 수산기 · 나일론 · 양모 · 견 등의 아미노기와 공유결합에 의하여 섬유와 결합하는 염료이다. 공유결합을 이루고있기 때문에 물리적 흡착이나 이온결합에 의한 직접염료나 산성염료보다 세탁, 마찰견뢰도가 높고 내광성이 좋다.

<화학저널 1993/11/1>